

“수해 피해 입은 제주 佛心 달랜다”

약천사 ‘고승초청 철야용맹정진 대법회’ 개최

오즈 제주도 불자들의 마음에는 근심이 가득하다. 제주 관음사 사태로 굶린 상처가 채 가시기 전에 태풍 ‘나리’로 인해 또 한 번의 시련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때 제주 약천사(회주 혜인)가 제주 불자들의 아픈 상처를 달래고 발심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는 ‘고승초청 철야용맹정진 대법회’를 개최하기로 해 주목을 끈다. 법회는 10월 23일 오후 6시 30분부터 10월 24일 오전 6시까지 봉행되며, 수재민 및 불자들을 위로하는 시간도 마련된다.

23일 열리는 법회 1부는 오후 6시 30분 봉선사 조실 월

은 스님을 법사로 예불을 봉행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2부 순서는 흥겨운 산사음악회, 오후 8시 30분부터 시작되는 산사음악회는 김중환의 대금산조, 채수정의 판소리, 서정호의 아쟁 등 국악 예술공인과 영산회상 예술 포교단(단장 지우)의 마술쇼, 오복 공연 등 다채로운 공연이 펼쳐진다. 또 불자택원전 전원주씨와 선우유너씨도 초대된다.

3부 ‘철야용맹정진 대법회’는 오후 11시 정진 법문에 이어 다음날 오전 3시까지 진행한다. 스님들과 참가 대중들이 함께 하는 철야 용맹정진이며 참가하는 수좌 스님은 지리산 원각사 해동선원장 태운 스님, 수덕사 수좌

설정 스님, 전 조계종 총회위원장 지하 스님, 청주 용화사 주지 월탄 스님, 약천사 회주 혜인 스님, 백양사 유나 지선 스님, 한국 미얀마 선원장 산디마 스님, 정혜사 입승 선전 스님, 수덕사 총무 무애 스님 등이다. 이어 4부에서는 혜인 스님과 영산회상 포교단의 집전으로 24일 오전 4시 예불과 천도재로 회향한다.

약천사 부주지 성원 스님은 “도량을 만들고 가꾸는 것은 오로지 많은 사람들이 모여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정진하기 위해서이다”며 “법당을 완공한지 11년이 지난 올해부터는 함께 정진 수행하는 시간을 열고, 또한 수재민들의 아픔을 어루만지기 위해 행사를 추진했다”며 제주 시민들의 많은 동참을 권유했다.(064738-5000) **하성미 기자**



마하보디센터 개관식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사진 왼쪽)이 법문을 하고 있다.

“죽음 앞둔 환자 자비로 돌본다”

호스피스 양성 마하보디센터

“큰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는 공간, 실질적인 경험과 실천을 통해 진리를 아는 수행자가 바로 마하보디센터입니다.”

불교 호스피스 활동기틀 양성할 교육도 마하보디센터가 10월 7일 문을 열었다. 마하보디센터는 연면적 1240㎡에 교육관, 법당, 회의실, 숙소 등을 갖춘 2층 건물로 완공됐다. 앞으로 불교호스피스교육과 불교계 사회복지 종사자 위탁교육, 노인요양원 및 의료기관 종사자 교육 등을 담당하게 된다. 또 명상 수행 및 웰빙월드인(wellbeing-welldieing), 자아성장과 자기개발 등 각종 수행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능행 스님은 개관식에서 “마하보디센터는 단순한 교육관이 아니라 죽음과 행복, 연기법을 실천하며 깨어 있는 삶을 배

우는 곳”이라고 강조했다. 개관식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과 통도사 주지 정우 스님, 직지사 주지 자광 스님 및 사부대중 1000여명이 참석해 축하했다. 지관 스님은 “아픈 이들의 병고를 간호하는 것은 가장 수승한 복을 짓는 것”이라며 “마하보디센터를 통해 많은 호스피스 활동가가 배출되길 바란다”고 법문을 설했다.

한편, 정토사관자재회는 사부대중을 위한 ‘관자재요양병원’ 불사를 추진 중이다. 관자재요양병원은 서민과 승가를 위한 복지병원으로 일반재가환자병동, 승가요양병동, 중환자병동 등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규모는 950평으로 지하 1층 지상 3층이며 70% 설계가 마친 상황이다. 총 50억 원이 소요될 병원불사와 복지운영을 위해 정토사관자재회는 1인 1만원 후원계좌 갖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052)264-1007 **윤주/글·사진=하성미 기자**

부산지역 사찰 창립행사 ‘풍성’

부산·경남지역 사찰과 단체들의 창립기념행사가 잇달아 개최된다.

올해 개원 4주년을 맞은 부산 흥법사주지 심산은 10월 25일부터 28일까지 개원 기념행사를 연다. 25일 ‘대웅전 상단행화 및 야외 석조불상 점안식’을 오전 10시에 봉행하고 점안 의식에 이어 통도사 주지 정우 스님의 법문과 극단 자갈치의 가곡극과 풍물공연이 마련된다. 또 흥법사 신도들이 참여하는 사경, 조각보 및 ‘결방울

메고 떠나는 흥법사 108산사 순례’ 사진전을 25일부터 28일까지 열고 ‘마을상좌 수계식’은 28일에 개최한다. ‘마을상좌’란 출가하지 않고 스님을 은사로 모셔 직접 가르침을 받는 제자들을 의미한다. (051)508-0345

남해 화방사주지 효현은 화방복지재단 개원 5주년을 맞아 화방축제공연 ‘신심(信心)’을 개최한다. 10월 20일 오후 7시 화방사 앞마당에서 열리는 산사음악회에서는 하유 스님의 법고공연과 가수 한혜진씨의 공연 등이 펼쳐진다.

효현 스님은 “그동안 도움을 주신 후원자들과 자원봉사자를 초청해 고마움의 뜻을 전하고자 음악회를 마련

했다”며 개최 동기를 밝혔다. (055)863-5014

부산 내원정사주지 정린은 창건 기념행사를 참회 대법회로 마련하여 정진의 자리를 처음으로 펼친다. 10월 27일부터 11월 5일 10일간 재가 불자들을 대상으로 매일 오전 1시부터 4시까지 참선, 사경, 108배를 진행한다. (051)242-0691

또 부산 삼광사주지 영제는 11월 1일 오전 10시에 창건 38주년 기념 대법회를 봉행한다. 삼광사는 “1만 명의 불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부산에서의 성공적인 포교활동과 활동들을 돌아보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051)808-9252 **하성미 기자**

대구 동화사 점찰대법회 봉행

개산 법요식·유물 전시관 개관 등 행사 다채

대구 동화사주지 허운가 10월 20일 개산 1514주년 기념 개산대제 및 점찰산림대법회를 봉행한다. 점찰(占察) 법회란 주술과 점복 등의 토속신앙이 불교의 참회법과 결합된 것으로, 길흉·화복을 점찰해 업보를 깨우치고 참회를 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지장보살이 나무쪽을 던져 길흉·선악을 점하는 법과 참회하는 법을 말한 <점찰경>을 바탕으로 하며, 우리나라에서는 신라의 원광법사가 처음 봉행했다.

동화사는 점찰산림대법회를 통해 전통적인 점찰법회를 재현하고, 조계종 전체 대회장 성수 스님과 보은 법주사 회주 혜정 스님, 동화사 조실 진제 스님, 남양주 봉선사 조실 월운 스님, 전 조계종 교육원장 암도 스님, 전 교육원장 무비 스님 등을

초청해 법석을 마련한다.

이에 앞서 13일 유리관전에서는 점찰세미나와 점찰산림법회 인제식을 봉행했다. 20일 열리는 개산대제는 오전 9시 통일대불광장에서 헌광다례를 시작으로 극달조사 영정이운식, 개산 법요식, 유물전시관 개관식, 가사불사 회향식, 보살계 수계식, 산사음악회 등으로 진행된다. 이날 개관하는 유물전시관은 통일대불법당 지하 총 1096평 면적에 전시실과 문화센터 등을 갖추고 있다.

유물전시관은 앞으로 관람객들에 대한 불교문화교육을 실시하는 등 불교전통문화센터로서 자리매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개관특별전으로는 ‘사명대사 유물전과 진신사리 전시’가 준비됐다. (053) 985-4404 **여수령 기자**



백운사 보살계수계산림법회 봉행·목멩화 점안식

운봉산 백운사(주지 마하)는 10월 4일부터 6일까지 보살계수계산림법회를 봉행하고 목멩화 점안식을 개최했다. 태종사 조실인 도성 스님, 법어사 정계대회상 흥교 스님, 총북 광덕사 회주 혜인 스님이 보살계 법문을 설했고 백운사 주지 마하 스님은 “큰 공덕의 복밭을 이루시고 바라시는 소원성취와 근심걱정에서 벗어나 행복하기를 발원한다”며 참가한 사부대중에게 당부의 말을 남겼다.

동아시아학회 추계학술대회

동아시아불교문화학회(회장 김용환)는 10월 20일 양산 통도사에서 ‘불교 계단의 성립과 전개’를 주제로 제4회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대회에서는 통도사 율주 혜남 스님이 ‘불교 계단의 성립과 전개’를 주제로 기조발제를 하는 것을 비롯해 동국대 김경직 교수와 금강대 백도수 교수가 각각 ‘자장율사와 금강계단’, ‘인도불교에서의 계단의 구조와 의미’를 발표한다. 또 통도사 율원장 덕문 스님을 비롯한 한중일 학자들이 각 나라의 계단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여수령 기자**

사명대사 추모 대법회 봉행

부산불교연합회(회장 대상)는 10월 6일 부산 초읍 어린이대공원 사명대사 동상 앞에서 사명대사의 호국정신을 기리는 ‘사명대사 열반 제397주기 추모대법회’를 봉행했다.

대상 스님은 “일부 무분별한 종교인들이 국가의 안위는 뒤로 하고 자신의 종교와 종파의 이익만을 위해 광분하는 모습을 수시로 목격 한다”며 “호국불교의 정신을 이어 살신성인의 대승보살심을 나누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하성미 기자**

‘난치병 돕기 자비실천’ 법회

한국불교대학·대관음사(회주 우학)는 10월 7일 대구 두류공원 내 두류야구장에서 ‘난치병 돕기 자비실천 대법회’를 봉행했다. (사진)

15만 동문신도의 화합과 친목을 다지는 한마당 대축제가 된 이날 대법회는 난치병 어린이를 위한 헌혈, 장기기증 서명을 비롯해 동문신도 체육대회, 남녀노소가 즐기는 효도경기, 어린이경기, 집단축구, 줄다리기, 계주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체육대회 종합우승은 철곡도량 보현반이 차지했다. 우학 스님을 비롯한 100여 명의 사부대중은 헌혈과 장기기증 신청에 참여해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손법천 대구경북지사장**



우학 스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난치병 어린이들은 치료비가 없어 병마와 힘겹게 싸우고 있다”며 “불자들의 관심과 자비로 난치병을 앓고 있는 어린이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자비실천 대법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말했다.

단청북·수월관음도 전승공예대전 본상

10월 16일~29일 수상작 전시회

제32회 대한민국 전승공예대전에서 백은종씨의 ‘단청북(사진)’이 문화재청장상을, 이수예씨의 ‘수월관음도’가 한국문화재보호재단 이사장상을 수상했다.

10월 9일 서울중요무형문화재전수회관에서 열린 본상 심사 결과 김정근씨의 ‘감지금니묘법연화경변상도 7권’이 특선에 선정된 것을 비롯해 김경미씨의 ‘지장보살본원경12폭병풍’과 김석곤씨의 ‘아미타극락회상도’가 입선에 이름을 올리는 등 불교회화와 불교전통문양을 접목한 작품들이 다



수 선정됐다. 이번 전승공예대전에는 총 207명의 작가가 222점 831점의 작품을 출품했다.

수상작 전시회는 10월 16~29일까지 서울중요무형문화재전수회관에서, 11월 1~4일까지 대구전시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다. 전시 개막식 및 시상식은 10월 16일 오후 2시 서울중요무형문화재전수회관 기획전시실에서 열린다. **여수령 기자**

민들레밥집, 부산불교연합회서 운영키로

최근 두타 스님의 기금 유용 등으로 문제가 된 부산 민들레밥집이 부산불교연합회(회장 대상)에 의해 운영을 계속하게 됐다. 민들레밥집을 운영하던 두타 스님은 “모든 인수를 인계해 마치고 민들레 밥집에 일체 관여도 하지 않고 나타나지도 않겠다”고 밝혀 사실상 운영을 부산불교연합회가 맡게 된 것이다. 현재 민들레 밥집은 각 사찰의 보살들과 불교 적십자로 구성된 불교 연합회 직할봉사단(가칭)이 구성되어 활동을 펼치고 있다.

부산불교연합회는 “앞으로 민들레 밥집을 부산 동래구 뿐 아니라 부산 각 지역에 확산 발전시키고 노인 복지에 앞장서며 자선운동을 펼칠 계획도 수립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한편 두타 스님은 최근의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인 부분도 있으나 전후 사실도 듣지 않고 몰래 카메라로 촬영하며 필요한 부분만 선택하여 편집해서 방송된 것이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성미 기자**

SHC 삼환종합양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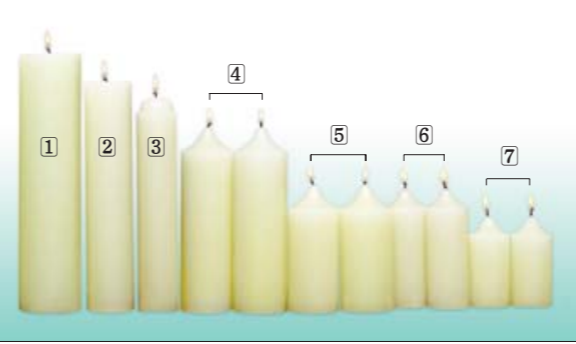
삼보귀의 하옵고 저희 삼환양초는 사람에게 꼭 필요한 초를 20년이 넘게 생산하고 있는 양초전문기업입니다. 꾸준한 **신상품**을 개발하여 (실내용 양초 = 밀납양초, 약쑥향양초, 식물성양초) 라는 제품을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스님 그리고 불자님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우창산업 SHC 삼환종합양초
TEL 031)766-0242~3
FAX 031)766-0233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현리 35-16
※ 주문하시면 택배로 안전하게 보내드립니다.

건강을 생각한다면 그을음 없는 삼환양초를 선택하십시오!!!



- 밀납양초(蜜蠟洋燭)
 - ① 밀납초(1~4호까지 8개) 받침대 2개) 선물세트
 - ② 밀납초공경(7개) 선물세트
 - ③ 밀납초원기둥 7.4φ × 30Cm
 - ④ 밀납초돈타레 5.6φ × 27Cm
 - ⑤ 밀납초 1호 반야심경 5.9φ × 20Cm 연소시간 約 80시간 이상
 - ⑥ 밀납초 1호 공경정간 5.9φ × 20Cm 연소시간 約 80시간 이상
 - ⑦ 밀납초 3호 반야심경 4.7φ × 14Cm 연소시간 約 30시간 이상
 - ⑧ 밀납초 4호 반야심경 4.7φ × 10Cm 연소시간 約 24시간 이상



- 약쑥향 양초
 - ① 원기둥 7.4φCm × 29Cm
 - ② 돈타레 5.6φCm × 27Cm
 - ③ 밀 대 4.7φCm × 25Cm
 - ④ 1호 5.9φCm × 20Cm
 - ⑤ 2호 5.9φCm × 14Cm
 - ⑥ 3호 4.7φCm × 13Cm
 - ⑦ 4호 4.7φCm × 10Cm

장엄용 양초



- 육각초 45cm
- 아광 호랑이(산신) 70φ × 35cm
- 아광 용초 70φ × 35cm
- 원기둥 마패 동신불 마패 7.4φ × 30cm, 4.7φ × 19.5cm

주소창에 '양초.net' 라고 쳐주세요 ~ 주소창 양초.net